

그리운 텡그리의 하늘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

- 내몽골 공정여행



손을 내밀어 이웃과 관계 맺기

출발하기 전 가진 여행준비모임에서 반복된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는 손을 내밀어 타인과 관계 맺기였다. 손을 내밀 대상은 현지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고 버스기사일 수도 있으며 공정여행을 선택한 일행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고정된 뒤에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베이징에서 타이푸스치 초원으로 가는 버스에서 자기 소개 시간이 있었다. 참가자들의 여행 동기와 약간은 들뜬 기대감을 접하면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다. 약간의 경계하는 마음과 함께 조금씩 기대감이 일었다. 모락모락 일어나는 기대감이 경계심을 누른 순간은 늦은 밤 초원에 도착하자 환영의 뜻으로 건네받은 하담을 목에 두르고 독한 마유주를 마셔버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학용품 전달과 몽골학교 학생들의 노래와 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정여행도 참가비의 일 퍼센트를 모아 학용품을 마련해왔다. 방학이어서 작년에는 선생님만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도 함께 와서 준비한 춤과 노래를 보여준다. 선물이 거둬지면서 진정성이 전달되었나 보다.

저녁을 먹고 세수를 하고 나니, 전통 의상을 입은 몽골 아이들이 여기 저기 활발하게 뛰어 다닌다. 그 중에 가장 어린 쌍둥이 소년 둘이 앉아 낯선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기에 사진을 같이 찍자고 말을 걸었더니 부끄러운 듯 얼굴을 피한다.

몽골어로 안녕이란 말이 '세노'라 하기에 아이들에게 우리 노래 '세노야'를 불러 주면서 슬그머니 옆자리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이 쌍둥이는 저녁 공연에서 몽골의 전통춤 '부흐'를 춤으로 표현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다른



아이들의 신나는 몽골 춤과 노래가 끝날 무렵 쌍둥이 중 한 아이가 갑자기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노래로 통한 것인가? 과자를 주어도 절대 받지 않고 고개를 뒤로 빼더니 짧은 시간이나마 얼굴이 익어서인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허전했다. 좀 더 몽골어를 할 줄 안다면,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두 상자의 학용품에 불과했는데,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환대해 주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일었다.

오보에 올라 텡그리에게 기도하다

산등성이에 있는 오보(돌탑)까지 걸었다. 가는 길에 돌을 하나씩 주워서 오보까지 걸어 올라갔다. 오보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질푸른 초록의 물결이 만드는 생동감, 몽계구름 끊임없이 피고 지는 파란 하늘의 개방감, 묵었던 걱정과 근심을 잔잔히 털어버리도록 격려하는 기분 좋은 바람이 분다.

외국 여행에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은 배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고 관습적인 가치 판단을 극복할 때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미학은 서구와 달리 인위적인 형상화보다 '주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에 색과 생기를 더하는' 무위의 존재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같은 풍경의 특징을 발견하면 여행자는 '기슴이 사무치듯' 감동을 거듭하게 되며 비로소 우리의 이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사람의 취향과 문화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한 것이다.

사람이 풍경이 되는 여행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남는 여행을 하고 싶다면 현지 주민과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교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경험을 통해 여행자는 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비범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선물과 공연을 통해 관계 맺기를 지속하고 있는 내몽골 공정여행은 그런 점에서 나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 준 계기가 되었다.

텡그리는 몽골인의 하느님이다. 장릉의 소설 <늑대 토템>에는, 죽은 뒤 텡그리로 돌아가라고 늑대가 있는 초원에 시체를 던져놓고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아직도 초원 깊숙이 사는 몽골인들은 그리 장례를 지낸다고 한다. 오보의 돌무덤에 주워온 돌을 엮고, 오른쪽으로 세바퀴 돌면서 몽골인의 하느님 텡그리에게 소원을 빌었다. 여기 이 초원에 비가 많이 오기를, 몽골의 아이들이 바라는 것들이 부디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초원에 다시 올 수 있기를…….

글 김대규 | 서울 디지털대학교 법학전공교수
- 국제민주연대 내몽골 공정여행 참가